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과 JSB Mission Fund 팀께

그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남미 농아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었고 또한 저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선교보고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초에 메데린에 돌아와서 계속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농아인들에게 성경(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주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30분까지 성경모임을 통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농아인들이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농아인 몇몇은 꾸준히 모여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 성경말씀을 전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문제와 관련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농아인들이 처한 가정 문제들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8일(토) 오후에는 메데린 주변에 거주하는 농아인 집에 인근 농아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3월 16일(주일) 에는 메데린 근교에서 농아인 5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번 침례 받은 농아인들은 기존 천주교를 믿거나 잘못된 이단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콜롬비아내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농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농아인의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생활비도 조금 도움을 주고 있고 가끔 저녁식사를 제공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콜롬비아내 농아인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콜롬비아 농아선교 팀장들을 세워 회의를 통해 성경모임 시간이나 운영 방식, 전도 도시 등에 관하여 함께 회의도 가졌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먼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콜롬비아 내전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민간인 인질을 잡고 테러 등의 위험이 높아져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콜롬비아가 내전이 종식되고 안정이 되어 먼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콜롬비아내 농아 성도의 가족의 도움으로 현재 콜롬비아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콜롬비아가 속히 내전이 끝나고 안정 되도록
2. 농아인들의 경제적 회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3. 저의 건강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4. 장기체류 비자를 위하여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메데린 선교활동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메데린 선교활동



메데린 구교 선교활동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침례식

